



예술 꿈나무들... "이 얼굴을 기억해 두세요"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78회 호남예술제 성악 초등 부문 경연 참가자들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왼쪽부터 송서혁(송원초 2), 김우진(송원초 2), 최민서(불로초 2), 박재이(삼육초 1), 양하은(불로초 2), 한서하(장덕초2).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수도권 규제 풀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 정부 무대책에 전남도 '고심'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어려움  
수산물 타격 줄이기 대책 분주

전남 발전을 어렵게 하는 난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일자리는 지난해 실적보다 목표를 낮춰 잡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고,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오히려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시키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기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전남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온갖 노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오염수 방류도 현실화될 경우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어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류를 막기 위한 대응에는 미온적이다. 전남도도 자칫 먼저 나섰다가 수산물 소비 급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무시할 수 없어 신중한 입장이다. 전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과 예산 편성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할 말은 많은데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기업·투자 유치에 찬물=전남도가 최근 공시한 '2023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명시한 올해 15~64세 고용률 목표는 69.5%다. 전년도 고용률 실적(71.2%)보다 1.7%포인트나 낮췄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목표를 더 낮게 잡았다. 청년고용률의 경우 전년도 실적(40.1%)보다 2.5%포인트 낮춘 37.6%에 불과했다. 여성고용률 목표도 55.6%를 제시해 전년도 실적(58.3%)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100만명을 넘겼던 취업자 수도 올해 목표를 98만 5000명으로 축소했다. 그만큼 올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여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만의 상황이 아니다. 22개 시군 상당수가 올해 목표를 지난해 거둔 실적보다 낮춰 잡았다. 순천은 올해 취업자 수를 14만4500명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실적(14만6100명), 목표치(14만7000명)보다도 낮게 잡았다. 올해 목표로 한 청년고용률(34.8%)의 경우 전년도 실적(44.9%)에 견줘 무려 10.1%포인트 낮게 잡은 수치다. 여수 시도 올해 청년 고용률 목표치를 전년 실적(47.5%)보다 6.5%포인트 낮춘 41%로 잡았고, 여성고용률 목표(54%)도 지난해 실적(60.4%)보다 낮게 세웠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신규 산단을 개발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면서 조례를 바꿔 기업 유치 보조금을 늘리는가 하면, 풍력·초강력 레이저 등 첨단·전략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쌓고 있는데도 녹록치 않은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몰아주고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산단 없는 일자리 창출과 인

구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서 전남도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등의 계획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경제 타격 불보듯한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최대 악재인데, 전남도는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산물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전남도의회가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 회피로 일관하는 등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고강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사뭇 온도 차가 느껴진다.

최근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수협, 여수수산업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여수지역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전남이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의 59%인 192만 t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라는 점에서 자칫 먼저 나섰다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코로나 3년' 20·30세대 빚 최다 증가

대출자 1명 은행 7000만원 빌려  
2금융권 대출도 크게 늘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동안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20·30대 젊은 세대로 확인됐다.

20·30대들의 대출은 3년 새 30% 가까이 불었고, 은행과 2금융권에서 각 대출자 한 명당 평균 7000만원, 5400만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다. 연체율도 서서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청년층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490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902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1270만명·766조8000만원)와 비교하면 대출자 수, 잔액이

3년 새 각 17.3%, 17.7% 늘었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8.7%(2019년 4분기 468조5000억원→2022년 4분기 50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자를 연령대로 나눠보면, 20·30세대가 대부분인 '30대 이하' 계층의 대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작년 4분기 현재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해 모두 514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4분기 404조원보다 27.4%나 늘어난 것이다.

30대 이하의 대출 증가율은 60대 이상(25.5%·288조6000억원→362조1000억원), 40대(9.2%·478조4000억원→522조6000억원) 등 나머지 모든 연령층보다 높았다.

3년간 대출 증가액 역시 30대 이하(110조5000억원)가 1위였다. 특히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대출잔액/차주 수)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도 20·30대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안' 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

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누차 총파업 계획을 언급했었다. 지난 27일 간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중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 지자체별 기피 부서는 어디... ▶6면
- KIA, 잠실 LG전 스윙... 파죽의 5연승 ▶18면
- 호남 누정 - 광주 영상강 풍영정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